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캠페인'에 참가한 북구 공무원과 금광공사 직원 등 50명이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어요"

광주 북구청-금광공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운동'

U대회·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앞두고 청결 이미지 만들기

광주시 북구와 지역 생활폐기물 전문수거업체인 금광공사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운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하계 U대회·7월) 개최에 이어 KTX 호남선 개통(4월 예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9월 예정)을 앞두고 깨끗하고 청결한 북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북구는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앞 사거리에서 신금호 북구 복지환경국장과 김환국 금광공사 사장 등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U대회 성공개최 등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범시민운동 운동 캠페인이 밝고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캠페인'을 성숙한 시민의식 전환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다짐했다.

또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주민 주도 아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 주관으로 이날부터 실시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운동은 ▲유동인구 많은 길거리 현장홍보 ▲불법무단투기 및 혼합투기 예방교육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구 공무원과 금광공사 직원 등 50명은 이날 발대식 직후 15명씩 3개조로 나눈 뒤 북구청→광주은행용봉점→우치로, 평화맨션→말바우사거리, 북구청→광주역 삼거리 방향에서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요', '생활쓰레기는 내 집앞에 배출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껌·비닐봉투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행인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분리기준'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나눠줬다.

또 전대후문 식당 밀집지역에선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수거함을 일일이 닦아낸 뒤 주인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관리 요령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줬다.

이들은 매주 목·금요일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지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주민홍보 캠페인을 연 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선 책임계도 담당제를 실시해 직원들이 직접 질서지키기를 유도하고 신고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단독주택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은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재활용품)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면서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 금광공사 측과 협조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명의 빌려준 장애인 단체 2곳 추가 조사

광주경찰, 장애인 공급 아파트 투기 수사…각 구청에 자료 요청

광주지역 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불거진 '장애인 특별공급분 분양비리 수사'<광주일보 2월 5일자 6면>와 관련, 광주경찰이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대한 자료를 각 구청에 요청하는 등 광주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분양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특별공급세대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구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분양 당시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주 A아파트에 이어 B아파트에서도 장애인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은 뒤 일반인에게 프리미엄(전매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한 만큼 분양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경찰의 특별공급분 분양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장애인 명의를 빌려주는데 조직·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단체가 한 곳이 아닌 최소 두 곳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는 한편 해당 장애인단체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지역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선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특별공급분 분양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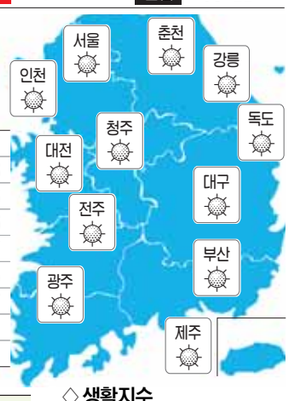
해뜸	07:28	달뜸	20:16
해짐	18:05	달짐	08:22

일요일! 강추위 예상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3/8	보 성	맑음	-4/7
목 포	맑음	-2/6	순 천	맑음	-3/8
여 수	맑음	0/8	영 광	맑음	-4/6
나 주	맑음	-6/8	진 도	맑음	-2/6
완 도	맑음	-1/6	전 주	맑음	-4/7
구 례	맑음	-4/7	군 산	맑음	-4/5
강 진	맑음	-3/6	남 원	맑음	-6/7
해 남	맑음	-2/6	흑산도	맑음	2/6
장 성	맑음	-6/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먼바다	북서~북	1.5~2.5	서~북서	1.0~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	서~북서	0.5~1.0
	먼바다(동)	서~북서	1.5~3.0	서~북서	0.5~1.5
	먼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9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25	08:45
	15:55	21:10
여수	10:38	04:17
	22:47	16:36

◇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2/6	-4/-3	-7/2	-3/7	-2/7	-1/7	-2/6

주월초 리모델링 사업비 일방 축소

광주시의회 "주민 기만한 것" 질타

광주시가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광주일보 2월5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는 5일 녹색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주월초를 방문해 광주시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예산 축소에 대해 따졌다.

문상필 의원(북구 6)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과 시민, 학생들은 207억원에서 197억원으로 다시 144억원으로 변경되고 있는 사안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옥자 의원(광산 3)은 "주월초교의 휴교 결정은 학부모와 교육청의 의지에 결정한 것이 아닌 광주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발생된 사안"이라며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권·통학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동의했는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영남 의원(서구 3)은 "207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광주시교육청이 50억원을 편성했는데 144억원으로 축소됐는데도 교육청이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예산 편성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이은방 의원(북구 6)은 "지역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고, 유정심 교육위원장(남구 2)은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주월초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월초는 녹색리모델링을 통해 명품학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당초 사업비 207억원은 가예산이었을 뿐이며, 학부모와 약속한 리모델링은 변화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